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하나선¹ · 최 정²

서일대학 간호과 교수¹, 안산대학교 간호과 조교수²

A Longitudinal Study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Ha, Na Sun¹ · Choi, Jung²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longitudinally the professional socialization (PS), self-esteem (SE1), and self-efficacy (SE2) over tim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same nursing students in 2008, 2009, and 2010 years.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ANOVA test with the SAS package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Results:** The differences in the PS, SE1, and SE2 over time were not significant in nursing students. However, the differences in decision making over time were significant in nursing student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1 and SE2 continuously affected professional socialization over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continuing and long-term strategy, which strengthens SE1 and SE2 in order to improve professional socialization.

Key Words: Nursing students, Socialization, Self-esteem, Self-efficac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 된 것으로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교육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전문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간호학생은 처음에는 간호 전문직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과 유사하지만,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에 대한 관점이 차츰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이를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직업

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이 전문직사회화이다(Chitty, 2001). 즉, 자신이 속해 있는 간호조직의 설립 방침을 수용하고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지지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생산성 있는 일원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김문실, 최순옥, 2003). 이러한 전문직사회화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고 일생에 걸친 학습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Weis & Schank, 2002).

간호 전문직사회화는 대학에서의 정규 교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계화됨으로써 조직의 일원인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이명하 등,

주요어: 간호학생,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Corresponding author: Choi, Jung, Department of Nursing, Ansan College, 752 Il-dong, Sangnok-gu, Ansan, Gyeonggido 426-701, Korea.
Tel: 82-31-400-7109, Fax: 82-31-400-7107, E-mail: jchoi@ansan.ac.kr

- 본 논문은 2010년 서일대학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투고일 2011년 9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7일

2003). 정규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학생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규범 및 정체성, 직업에 대한 가치를 습득하는 전문직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환경의 내부인으로 동화되기 위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직사회화는 간호교육 과정뿐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발달되어가는 과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소선 등, 2004). 전문직사회화는 전문직 집단의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행동과 자아개념으로 내재화 되는 것(du Toit, 1995)으로, 간호학생 시기에서부터 간호 전문직에 어울리는 바람직한 개인적 인성과 태도가 형성되는 것은 전문직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Cohen (1991)에 의하면, 간호학생들이 간호전문직 역할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일방적 의존단계, 부정단계, 의존단계, 상호의존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만족스러운 사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야 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화된 학생들은 전문직 역할의 정체성을 포함한 자아개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간호학생은 간호교육을 통해 학년수준별 사회화 정도가 다르리라고 볼 수 있다. 간호학생이 전문직사회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간호사로서의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간호 전문직에 대한 소속과 애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되어 간호 전문직과 관련된 일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증가하므로(Secret, Norwood, & Keatley, 2003), 간호에 대한 공동의식을 발달시키고 전문직으로 역동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문직사회화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가치, 행위, 자아개념에 대한 변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Howkins와 Ewens (1999)는 전문직사회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재해석 및 변화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 경험, 실습을 통한 개인 역할의 재평가, 교육과정 동안의 믿음과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이 대학에서 간호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학생 개인의 가치와 신념, 가족의 가치, 교육경험, 직업에 대한 이미지 등이 사회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명하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사회화 변화 과정을 보는 것 외에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도 고려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결과에서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 및 조절변인들은 성격, 통제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관리 능력, 직무특성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옥주영, 탁진국, 2003).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옥주영과 탁진국

(2003)의 연구결과, 조직사회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자기존중감을 포함한 개인 변인은 조직사회화를 40% 설명하는데 비해, 환경 변인은 23%를 설명하여, 개인변인이 조직사회화를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 변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중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동료들도 따르는 지도자가 되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타인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Rosenberg, 1965).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여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적 확신과 발전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권영미, 윤은자, 2007). 간호학생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지닐수록, 현재 생활 전반에 만족할 뿐 아니라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간호 전문직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권영미, 윤은자, 2007; 정미현, 신미아, 2006), 간호 전문직에 대한 적응을 도와 궁극적으로 전문직사회화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간호 전문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또한 행동을 수행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또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얼마만큼 저항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행동 변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Bandura, 1977).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행위의 선택이나 지속 등 모든 부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도 높아지며, 학업,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학업성취도 향상되어 조직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간호 전문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규범, 정체성, 직업에 대한 가치를 습득하는 전문직사회화 발달과정과 이러한 전문직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입학 당시부터 졸업반까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종단적으로 규명해 봄으로써 간호학 교과과

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간호 전문직 발달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 정도를 종단적으로 규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생의 학년수준별 전문직사회화 변화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학년수준별 자아존중감 변화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학년수준별 자기효능감 변화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전문직사회화

전문직사회화란 전문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식, 기술, 직업적 정체성의 습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으로 (Cohen, 1991), 본 연구에서는 du Toit (1995)가 개발한 Professional Socialization Scale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과 박연환(2005)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느낌, 감정, 동기 등이 개인의 심리현상 속에서 수용되고 조직화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감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과정을 종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전문대학에 2008년도에 입학한 간호학생 전수를 임의 표출하였으며, 동일한 대상자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1차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28일이었으며, 2차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였으며, 3차 자료수집은 2010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배부한 후,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구조화된 질문에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응답자 수는 1차년도 243명, 2차년도 237명, 3차년도 237명으로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 휴학을 하였거나 자퇴 등의 이유로 탈락한 6명의 학생은 본 연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지 중 임상실습 만족도의 경우 2학년과 3학년만 해당되는 문항이므로, 1학년 시점인 2008년에는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전문직사회화 측정도구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정도는 du Toit (1995)가 개발한 Professional Socialization Scale을 번역한 총 54문항의 도구 중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2문항을 제외한 52문항을 사용한 오덕자 등(200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2문항은 4개의 세부 영역인 소명의식 13문항, 성숙 12문항, 독립성 14문항, 의사결정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사회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오덕자 등(2005)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2008년 .92, 2009년 .94, 2010년 .94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한국인에 맞게 번안한 10문항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 기준은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 문항은 역 환산처리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2008년 .83, 2009년 .84, 2010년 .83으로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 5점 척도로,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2008년 .86, 2009년 .89, 2010년 .8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AS 8.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학년수준별 간호학생의 총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및 전문직사회화의 하위영역별 유의미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 Model을 이용하였다.
-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one-way ANOVA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1학년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48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2.41%이었고, 간호직에 대한 의미로는 “매우 의미를

둔다”고 답한 학생이 63.14%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다”라는 학생이 50.85%, 입학동기는 “취직이 잘 되어서”가 46.19%, 졸업 후 취업희망은 “종합 및 대학병원”이 76.69%이었고,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3.14%로 나타났다.

2학년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48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2.41%이었고, 간호직에 대한 의미로는 “매우 의미를 둔다”고 답한 학생이 55.28%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다”라는 학생이 52.74%, 입학동기는 “취직이 잘 되어서”가 49.37%, 졸업 후 취업희망은 “종합 및 대학병원”이 8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50.21%이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6.12%로 높게 나타났다.

3학년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48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2.41%, 간호직에 대한 의미로는 “매우 의미를 둔다”고 답한 학생이 54.85%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다”라는 학생이 57.80%, 입학동기는 “취직이 잘 되어서”가 43.64%, 졸업 후 취업희망은 “종합 및 대학병원”이 7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0.34%이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3.59%로 높게 나타났다.

2. 학년수준별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변화정도의 차이

간호학생의 총 전문직사회화 정도는 2008년 1학년 시점에서 평균 3.76점, 2009년 2학년 시점에서 평균 3.76점, 2010년 3학년 시점에서 평균 3.78점으로 3학년 시점에서 평균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17, p=.845$)(표 2, 그림 1).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점에서 전문직사회화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독립성 영역에서만 2학년 시점에서 독립성 평균 4.08점, 3학년 시점에서 독립성 평균 4.05점, 1학년 시점에서 독립성 평균 3.96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80, p=.008$). Scheffé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 2학년 시점이 1학년, 3학년 시점보다 독립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2).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2008년 1학년 시점에서 평균 3.58점, 2009년 2학년 시점에서 자아존중감 평균 3.63점, 2010년 3학년 시점에서 자아존중감 평균 3.69점으로 평균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69, p=.068$)(표 2, 그림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7)

항목	분류	1학년	2학년 n (%)	3학년 n (%)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연령 (세)		20.48±3.82	21.48±3.41	22.48±3.18
성별	여성	219 (92.41)	219 (92.41)	219 (92.41)
	남성	18 (7.59)	18 (7.59)	18 (7.59)
간호직에 대한 의미	전혀 (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5 (2.11)	11 (4.64)	7 (2.96)
	보통이다	16 (6.78)	21 (8.86)	22 (9.28)
	약간 의미를 둔다	66 (27.97)	74 (31.22)	78 (32.91)
	매우 의미를 둔다	149 (63.14)	131 (55.28)	130 (54.85)
대인관계	좋은 편이다	120 (50.85)	125 (52.74)	137 (57.80)
	보통이거나 나쁜 편이다	116 (49.15)	112 (47.26)	100 (42.20)
입학동기	취직이 잘 되어서	109 (46.19)	117 (49.37)	103 (43.64)
	고교 실력 및 적성	23 (9.75)	29 (12.24)	34 (14.41)
	봉사직을 갖기 위해	23 (9.75)	16 (6.75)	19 (8.05)
	유학 및 교수희망	7 (2.97)	4 (1.69)	5 (2.12)
	타인의 권고	32 (13.55)	38 (16.03)	40 (16.95)
	주위 간호사상에 감동	20 (8.47)	10 (4.22)	17 (7.20)
	기타	22 (9.32)	23 (9.70)	18 (7.63)
졸업 후 취업희망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181 (76.69)	193 (81.43)	184 (77.64)
	중소 및 개인병원	7 (2.97)	15 (6.33)	26 (10.97)
	학교보건 및 보건직공무원	25 (10.59)	20 (8.44)	16 (6.75)
	기타	23 (9.75)	9 (3.80)	11 (4.64)
전공만족도	만족이다	149 (63.14)	119 (50.21)	143 (60.34)
	보통이다	82 (34.74)	109 (45.99)	84 (35.44)
	불만족이다	5 (2.12)	9 (3.80)	10 (4.22)
임상실습 만족도 [†]	만족이다		79 (33.33)	89 (37.55)
	보통이다		133 (56.12)	127 (53.59)
	불만족이다		25 (10.55)	21 (8.86)

[†]1학년 시점 제외.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2008년 1학년 시점에서 평균 3.49점, 2009년 2학년 시점에서 자기효능감 평균 3.47점, 2010년 3학년 시점에서 자기효능감 평균 3.52점으로 2학년 시점에서 평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44$, $p=.641$)(표 2, 그림 1).

3.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사회화는 1학년 시점에서 간호직에 대한 의미($F=20.03$, $p<.001$), 대인관계($F=17.26$,

$p<.001$), 입학동기($F=4.71$, $p<.001$), 전공만족도($F=26.1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시점에서 간호직에 대한 의미($F=21.78$, $p<.001$), 대인관계($F=19.15$, $p<.001$), 입학동기($F=3.87$, $p=.001$), 전공만족도($F=24.77$, $p<.001$), 임상실습만족도($F=10.73$,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시점에서 간호직에 대한 의미($F=21.26$, $p<.001$), 대인관계($F=7.71$, $p=.005$), 입학동기($F=4.19$, $p<.001$), 전공만족도($F=25.59$, $p<.001$), 임상실습만족도($F=9.5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1학년 시점에서 간호

표 2. 간호학성의 학년수준별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변화정도의 차이

(N=237)

변수	2008년 1학년	2009년 2학년	2010년 3학년	F (p)	Scheffé
	M±SD	M±SD	M±SD		
총 전문직사회화	3.76±0.34	3.76±0.40	3.78±0.38	0.17 (.845)	
소명의식	3.86±0.50	3.76±0.52	3.80±0.53	2.35 (.096)	
성숙	3.56±0.35	3.56±0.47	3.53±0.34	0.47 (.625)	
독립성	3.96±0.40 ^a	4.08±0.49 ^b	4.05±0.44 ^c	4.80 (.008)	a, c < b
의사결정	3.62±0.43	3.63±0.49	3.69±0.47	1.57 (.209)	
총 자아존중감	3.58±0.54	3.63±0.58	3.69±0.52	2.69 (.068)	
총 자기효능감	3.49±0.48	3.47±0.55	3.52±0.52	0.44 (.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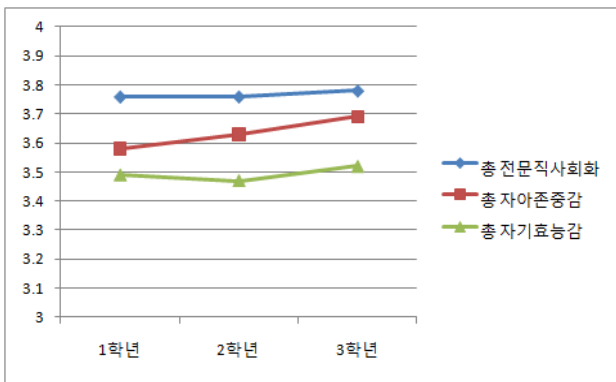


그림 1. 간호학성의 학년 수준별 총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변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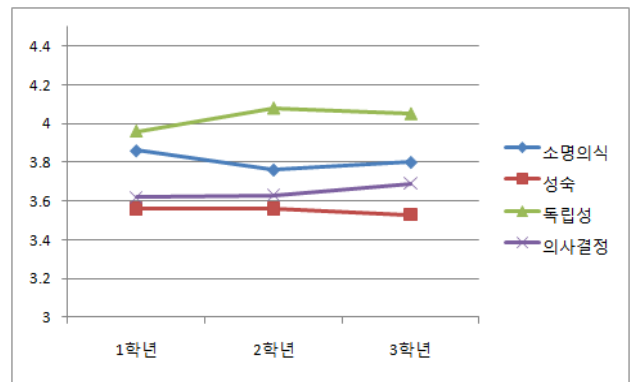


그림 2. 간호학성의 학년 수준별 전문직사회화 하위 영역의 변화정도.

직에 대한 의미(F=3.22, $p=.023$), 대인관계(F=35.04, $p<.001$), 전공만족도(F=11.3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시점에서는 간호직에 대한 의미(F=2.66, $p=.049$), 대인관계(F=24.59, $p<.001$), 전공만족도(F=15.39, $p<.001$), 임상실습만족도(F=7.2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시점에서는 간호직에 대한 의미(F=8.17, $p<.001$), 대인관계(F=29.81, $p<.001$), 전공만족도(F=14.84, $p<.001$), 임상실습만족도(F=16.4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1학년 시점에서 간호직에 대한 의미(F=4.85, $p=.002$), 대인관계(F=20.73, $p<.001$), 입학동기(F=3.65, $p=.001$), 전공만족도(F=13.6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시점에서 성별(F=8.34, $p=.004$), 간호직에

대한 의미(F=3.78, $p=.011$), 대인관계(F=12.20, $p<.001$), 전공만족도(F=7.44, $p<.001$), 임상실습만족도(F=5.77,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시점에서 성별(F=4.63, $p=.032$), 간호직에 대한 의미(F=8.51, $p<.001$), 대인관계(F=13.57, $p=.049$), 전공만족도(F=9.75, $p<.001$), 임상실습만족도(F=11.9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논 의

본 연구는 학년수준별 간호학성의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 과정을 종단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간호학성의 총 전문직사회화 정도는 1,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다소 상승하였으나, 학년에

표 3.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사회화의 차이

(N=237)

변수	내용	1학년 시점	2학년 시점	3학년 시점
		전문직사회화	전문직사회화	전문직사회화
		M±SD	M±SD	M±SD
연령	18세 이상~21세 미만	3.74±0.34	3.76±0.39	3.76±0.39
	21세 이상~26세 미만	3.77±0.31	3.68±0.41	3.75±0.38
	26세 이상~31세 미만	3.87±0.23	3.93±0.33	3.94±0.27
	31세 이상	3.76±0.47	3.78±0.27	3.81±0.28
	F (p)	0.52 (.670)	3.51 (.516)	1.35 (.260)
성별	여성	3.75±0.34	3.74±0.40	3.76±0.36
	남성	3.81±0.23	3.86±0.28	3.92±0.42
	F (p)	0.65 (.419)	5.11 (.064)	3.11 (.079)
간호직에 대한 의미	전혀 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3.40±0.49	3.26±0.28	3.29±0.30
	보통이다	3.52±0.36	3.40±0.45	3.41±0.29
	약간 의미를 둔다	3.58±0.27	3.69±0.34	3.70±0.33
	매우 의미를 둔다	3.87±0.29	3.89±0.34	3.90±0.34
	F (p)	20.03 (<.001)	21.78 (<.001)	21.26 (<.001)
대인관계	좋은 편이다	3.84±0.31	3.86±0.37	3.83±0.38
	보통이거나 나쁜 편이다	3.66±0.33	3.64±0.39	3.69±0.35
	F (p)	17.26 (<.001)	19.15 (<.001)	7.71 (.005)
입학동기	취직이 잘 되어서	3.71±0.30	3.69±0.41	3.70±0.34
	고교 실력 및 적성	3.77±0.33	3.84±0.25	3.78±0.34
	봉사직을 갖기 위해	3.79±0.31	4.00±0.39	3.97±0.31
	유학 및 교수희망	4.15±0.28	3.99±0.18	4.19±0.33
	타인의 권고	3.59±0.37	3.62±0.42	3.66±0.42
	주위 간호사상에 감동	3.92±0.38	3.85±0.35	3.93±0.48
	기타	3.85±0.21	3.95±0.26	3.91±0.23
F (p)	4.71 (<.001)	3.87 (.001)	4.19 (<.001)	
졸업 후 취업희망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3.77±0.32	3.77±0.38	3.80±0.36
	중소 및 개인병원	3.58±0.25	3.61±0.43	3.68±0.39
	학교보건및보건직공무원	3.66±0.38	3.83±0.42	3.74±0.34
	기타	3.76±0.37	3.67±0.54	3.61±0.50
	F (p)	1.35 (.257)	1.12 (.341)	1.51 (.213)
전공 만족도	만족이다	3.86±0.28	3.92±0.33	3.89±0.35
	보통이다	3.59±0.32	3.62±0.37	3.62±0.32
	불만족이다	3.29±0.44	3.28±0.37	3.34±0.30
	F (p)	26.16 (<.001)	24.77 (<.001)	25.59 (<.001)
임상실습 만족도	만족이다		3.89±0.37	3.90±0.39
	보통이다		3.72±0.37	3.72±0.33
	불만족이다		3.51±0.43	3.58±0.41
	F (p)		10.73 (<.001)	9.55 (<.001)

† 1학년 시점 제외.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사회화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독립성 영역에서만 1학년 시점에서 평균 3.96점이었던 독립성 정도가 2학년 시

점 평균 4.08점으로 상승하였다가 3학년 시점 평균 4.05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

표 4.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N=237)

변수	내용	1학년 시점	2학년 시점	3학년 시점
		전문직사회화	전문직사회화	전문직사회화
		M±SD	M±SD	M±SD
연령	18세 이상~21세 미만	3.54±0.54	3.63±0.55	3.58±0.53
	21세 이상~26세 미만	3.58±0.52	3.53±0.65	3.74±0.51
	26세 이상~31세 미만	3.64±0.41	3.77±0.35	3.72±0.38
	31세 이상	3.82±0.64	3.95±0.43	4.03±0.50
	F (p)	0.52 (.670)	2.69 (.147)	2.52 (.059)
성별	여성	3.56±0.53	3.59±0.57	3.68±0.52
	남성	3.75±0.59	3.88±0.38	3.79±0.46
	F (p)	2.07 (.151)	3.09 (.452)	0.77 (.381)
간호직에 대한 의미	전혀 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3.70±0.58	3.49±0.63	3.28±0.83
	보통이다	3.32±0.75	3.52±0.64	3.37±0.36
	약간 의미를 둔다	3.45±0.50	3.51±0.63	3.60±0.55
	매우 의미를 둔다	3.64±0.51	3.72±0.50	3.81±0.45
	F (p)	3.22 (.023)	2.66 (.049)	8.17 (< .001)
대인관계	좋은 편이다	3.76±0.43	3.79±0.48	3.83±0.44
	보통이거나 나쁜 편이다	3.37±0.56	3.44±0.61	3.48±0.54
	F (p)	35.04 (< .001)	24.59 (< .001)	29.81 (< .001)
입학동기	취직이 잘 되어서	3.57±0.51	3.58±0.57	3.60±0.51
	고교 실력 및 적성	3.49±0.44	3.75±0.42	3.76±0.48
	봉사직을 갖기 위해	3.47±0.48	3.80±0.56	3.77±0.45
	유학 및 교수희망	4.05±0.50	3.80±0.42	3.88±0.46
	타인의 권고	3.46±0.70	3.48±0.68	3.64±0.52
	주위 간호사상에 감동	3.61±0.57	3.44±0.68	3.82±0.74
	기타	3.66±0.42	3.84±0.47	3.85±0.37
	F (p)	1.54 (.166)	1.74 (.112)	1.27 (.270)
졸업 후 취업희망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3.58±0.52	3.61±0.57	3.69±0.51
	중소 및 개인병원	3.10±0.69	3.53±0.60	3.72±0.63
	학교보건및보건직공무원	3.56±0.49	3.59±0.49	3.62±0.30
	기타	3.65±0.60	4.06±0.58	3.59±0.63
	F (p)	2.02 (.112)	1.89 (.132)	0.28 (.841)
전공 만족도	만족이다	3.69±0.47	3.80±0.52	3.79±0.50
	보통이다	3.35±0.59	3.48±0.56	3.60±0.44
	불만족이다	3.51±0.18	3.02±0.54	2.98±0.65
	F (p)	11.32 (< .001)	15.39 (< .001)	14.84 (< .001)
임상실습 만족도	만족이다		3.79±0.46	3.83±0.52
	보통이다		3.58±0.59	3.67±0.45
	불만족이다		3.34±0.62	3.16±0.55
	F (p)		7.20 (< .001)	16.48 (< .001)

† 1학년 시점 제외.

문직사회화 정도가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중단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 어려웠으나, 간호학생과 간호사의 전문직사회화를 비교한 김소선 등(2004)의 연구결과,

간호학생이 간호사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던 문항이 “의사들은 간호를 자율적인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문항이어서 간호학생이 간호사들의 독자적 간호영역이 부족

표 5.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N=237)

변수	내용	1학년 시점	2학년 시점	3학년 시점
		전문직사회화 M±SD	전문직사회화 M±SD	전문직사회화 M±SD
연령	18세 이상~21세 미만	3.43±0.47	3.43±0.51	3.41±0.51
	21세 이상~26세 미만	3.63±0.47	3.48±0.64	3.53±0.52
	26세 이상~31세 미만	3.64±0.23	3.60±0.35	3.79±0.45
	31세 이상	3.79±0.52	3.86±0.30	3.77±0.15
	F (p)	3.14 (.056)	1.64 (.181)	3.22 (.073)
성별	여성	3.49±0.47	3.44±0.54	3.49±0.51
	남성	3.78±0.49	3.82±0.35	3.76±0.54
	F (p)	4.01 (.040)	8.34 (.004)	4.63 (.032)
간호직에 대한 의미	전혀 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3.40±0.32	3.41±0.65	3.19±0.78
	보통이다	3.26±0.46	3.31±0.60	3.25±0.46
	약간 의미를 둔다	3.36±0.45	3.34±0.53	3.38±0.52
	매우 의미를 둔다	3.58±0.47	3.57±0.51	3.65±0.46
	F (p)	4.85 (.002)	3.78 (.011)	8.51 (<.001)
대인관계	좋은 편이다	3.62±0.41	3.58±0.50	3.57±0.48
	보통이거나 나쁜 편이다	3.35±0.50	3.34±0.56	3.34±0.55
	F (p)	20.73 (<.001)	12.20 (<.001)	13.57 (.049)
입학동기	취직이 잘 되어서	3.45±0.44	3.42±0.56	3.38±0.46
	고교 실력 및 적성	3.54±0.45	3.50±0.40	3.48±0.42
	봉사직을 갖기 위해	3.51±0.49	3.56±0.45	3.73±0.44
	유학 및 교수희망	4.10±0.42	3.63±0.50	3.77±0.68
	타인의 권고	3.29±0.52	3.32±0.69	3.47±0.51
	주위 간호사상에 감동	3.60±0.32	3.64±0.41	3.75±0.79
	기타	3.61±0.50	3.72±0.37	3.90±0.40
	F (p)	3.65 (.001)	1.76 (.108)	4.61 (.240)
졸업 후 취업희망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3.48±0.47	3.46±0.54	3.55±0.47
	중소 및 개인병원	3.31±0.50	3.29±0.55	3.34±0.65
	학교보건및보건직공무원	3.44±0.44	3.57±0.52	3.47±0.53
	기타	3.69±0.50	3.75±0.46	3.41±0.74
	F (p)	1.83 (.142)	1.65 (.178)	1.39 (.247)
전공 만족도	만족이다	3.61±0.43	3.58±0.52	3.62±0.49
	보통이다	3.28±0.49	3.38±0.54	3.39±0.48
	불만족이다	3.32±0.32	3.00±0.47	3.06±0.74
	F (p)	13.60 (<.001)	7.44 (<.001)	9.75 (<.001)
임상실습 만족도	만족이다		3.62±0.48	3.69±0.50
	보통이다		3.41±0.54	3.44±0.49
	불만족이다		3.27±0.59	3.18±0.46
	F (p)		5.77 (.003)	11.95 (<.001)

† 1학년 시점 제외.

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영역 중 독립성 영역이 2학년 시점보다 임상실습 경험이 더욱 많아지는 3

학년 시점에 더욱 감소되었다는 점은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과정에서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문직사회화 중 독립성 영역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전문직 자율성은 전문직 사회화의 특징으로 언급되어 오고 있으며(Williams & McGowan, 1995), 전문간호의 독자성 확보와 간호의 질적 보장에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자율성, 독립성은 전문직의 본질적 구성 요인이자 평가기준으로 자율성 신장은 간호 전문직에서도 중요한 개념인데 비해 본 연구결과 동일한 대상자가 고학년이 될수록 전문직사회화 중 독립성 영역을 더 낮게 인식한 점은 국가고시 위주의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전통적 간호교육이 지닌 문제점이라고 여겨진다. Mackintosh (2006)에 의하면,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과정은 간호교육 입문에서부터 시작되며 간호 학생들은 이때부터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질(quality)을 학습하고, 간호사는 자율적이고 능력이 있으며 존경받는 전문직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Shinyashiki 등(2006)에 의하면, 간호대학 재학 중 특히 대학교 2, 3학년 사이에 가치와 간호지식, 자아개념과 관련된 전문직사회화의 변화가 의미 있게 일어난다고 하여 간호교육이 전문직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교육 프로그램은 입학 초기부터 교과과정의 지속적 개편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과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직사회화의 하위영역 중 소명의식이나 성숙 같은 인성을 묻는 문항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전문직 사회화에 있어서 간호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과 간호사의 전문직사회화를 분석한 김소선 등(2004)의 연구에서 책임감이나 정서적 성숙함과 같은 개인적인 인성 측면을 묻는 문항들은 4학년 간호학생, 신규 간호사, 경력 간호사 세 그룹의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문직사회화에 있어 인성적 측면은 학생에서부터 경력간호사가 되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결과와 유사하다. 전문직사회화의 하위영역 중 의사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1,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능력은 임상간호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업무 수행능력이 높으면 정확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되므로,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간호학생의 경우, 임상간호 현장에서 주로 관찰 위주의 실습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적은 것이 현

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병원에 입원한 대상자들은 간호학생의 직접적 간호 처치를 꺼려하고,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이성은, 2001). 간호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이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Medley & Horne, 2005),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교육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총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는 1학년 시점에서 평균 3.58점, 2학년 시점에서 평균 3.63점, 3학년 시점에서 평균 3.69점으로 평균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안효자와 정복례(2006)의 연구결과에서 1학년보다 2학년이 전공과목을 더 많이 이수함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소유할수록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한다(양영숙, 200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 저학년 때보다 고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상승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학업과 동시에 임상실습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흥미를 잃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부적응을 경험한다는(김조자, 허혜경, 강덕희, 김보환, 2004)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추후 반복해서 측정해 보아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간호학생의 총 자기효능감 정도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1학년 때 보다는 2학년 때 다소 감소되었으며, 3학년 때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정은(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3학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고, 2학년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

나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1학년 시점보다 2학년 시점에 자기효능감 점수가 감소된 점은 2학년 때부터 임상실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등이 자신감을 저하시키며, 1학년 때보다 전공 및 취업에 대한 부담감 및 이수 학점이 많아지는 등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스스로를 동기화시키고 어려움에 잘 직면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보다 잘 견뎌내게 한다(Benight & Bandura, 2004).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취적인 자세를 보이고, 새로운 상황을 정의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부과되는 역할이나 문화적 가치를 보다 쉽게 수용해 내며 학습과정을 자신의 기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 학업적 성취만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높여 건강한 삶의 질의 성취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환자간호와 관련된 정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증진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임상실습이 가능해지므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영희, 2009).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 학생일수록 학업의 성취 뿐 아니라 임상실습에 만족함으로써 대학 생활에 전반적으로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자기효능감이 가장 저하된 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 전문직 사회화는 학년이 올라가도 변화되는 양상이 없이, 간호직에 대한 의미, 대인관계, 입학동기, 전공만족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의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달리 전문직 사회화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입학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성적이나 타인의 권고보다는 본인의 희망으로 입학한 경우, 전공 및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할수록 간호학생 개인이 지닌 가치와 신념이 간호전문직 사회화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총 전문직 사회화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점 모두에서 간호직에 대한 의미, 대인관계, 전공

만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학년 시점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의 대학 입학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전 학기 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어(박현숙 등, 2002)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해 주고 있었다. 즉, 간호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므로 사회생활이 원만하고, 진취적이며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해 나가(Rosenberg, 1965),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년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점 모두에서 간호직에 대한 의미, 대인관계, 전공만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학년 시점에서는 성별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정은(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전공에 대해 만족한 그룹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룹에 비해,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그룹이 소극적인 그룹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간호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성취동기를 증가시키므로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입학동기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는 2, 3학년 시점을 제외한 1학년 시점에서만 입학동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 간호과에 입학할 때 주위 간호 사상에 감동을 받아서, 또는 유학 및 교수를 희망하거나 봉사직을 갖기 위해서 입학한 군이 취직이 잘 되어서, 고교 실력 및 적성 때문에, 타인의 권고 때문에 입학한 군보다 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인이 원해서 간호과에 지망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과거의 기존연구들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던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은 횡단적 방법을 사용하

지 않고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 조사하여 간호학생이 입학하여 졸업학년이 되는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문직사회화 정도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개인적 특성 변인들이 전문직사회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고찰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 정도를 종단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 237명이며, 동일한 대상자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의 총 전문직사회화 정도는 2008년 1학년 시점에서 평균 3.76점, 2009년 2학년 시점에서 평균 3.76점, 2010년 3학년 시점에서 평균 3.78점으로 3학년 시점에서 평균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17, p=.845$). 전문직사회화 영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독립성 영역에서만 2학년 시점에서 독립성 평균 4.08점, 3학년 시점에서 독립성 평균 4.05점, 1학년 시점에서 독립성 평균 3.96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80, p=.008$).

둘째,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2008년 1학년 시점에서 평균 3.58점, 2009년 2학년 시점에서 자아존중감 평균 3.63점, 2010년 3학년 시점에서 자아존중감 평균 3.69점으로 평균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69, p=.068$).

셋째,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2008년 1학년 시점에서 평균 3.49점, 2009년 2학년 시점에서 자기효능감 평균 3.47점, 2010년 3학년 시점에서 자기효능감 평균 3.52점으로 2학년 시점에서 평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44, p=.64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간호학생의 전문직사회화 정도는 1, 2학년 때보다는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상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기효능감 정도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는 전문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직사회화와 관련이 있는 개인특성 변수 및 집단특성 변수 등의 도입으로 보다 정교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간호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전문직사회화 과정을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정은(2003).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1(2), 97-106.
- 권영미, 윤은자(2007).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적,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3(3), 285-292.
- 김문실, 최순옥(2003). 조직사회화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9(1), 19-30.
- 김소선, 김조자, 이원희, 오의금, 문성미, 김영진(2004). 간호학생과 간호사의 전문직 사회화. *간호행정학회지*, 10(3), 317-323.
- 김영희(2009).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3), 307-315.
- 김조자, 허혜경, 강덕희, 김보환(2004). 심리사회적 중재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방법,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16(1), 90-101.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 안효자, 정복례(2006)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24-228.
- 양영숙(200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오덕자, 최철자, 권보은, 박연환(2005).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직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64-72.
- 옥주영, 탁진국(2003). 개인과 환경변인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1), 1-18.
- 이명하, 장금성, 김인숙, 홍윤미, 강윤숙, 공병혜, 신미자, 하나선(2003). *간호전문직과 간호윤리*. 서울: 현문사.
- 이성은(2001).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모성간호학 임상실습 중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2), 333-348.
- 전병재(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미현, 신미아(200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170-17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19-125.
- Benight, C., & Bandura, A. (2004). Social cognitive theory of post traumatic recovery: The role of perceived self-efficacy. *Behavioral Research of Therapy*, *42*(10), 1129-1148.
- Chitty, K. K. (2001). *Professional nursing: Concepts and challenges* (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 Cohen, H. A. (1991). *The Nurse's quest for a professional identity*. Menlo Park, California: Addison-Wesley.
- du Toit, D. D. (1995). A sociological analysis of the extent and influence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on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Brisbane, Austral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1), 164-171.
- Mackintosh, C. (2006). Caring: the socialization of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A longitudinal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8), 953-962.
- Howkins, E. J., & Ewens, A. (1999). How students experience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6*(1), 41-49.
- Medley, C. F., & Horne, C. (2005). Using simulation technology for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4*, 31-3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 Press.
- Secret, J. A., Norwood, B. R., & Keatley, V. M. (2003). "I was actually a nurse": The meaning of professionalism f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2), 77-82.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hinyashiki, G. T., Mendes, I. A., Trevizan, M. A., & Day, R. A. (2006). Professional socialization: Students becoming nurses.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14*(4), 601-607.
- Weis, D., Schank, M. J. (2002). Professional values: Key to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8*(5), 271-275.
- Williams, S., & McGowan, S. (1995). Professional autonomy: A pilot study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on nurses' attitudes.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11*, 150-155.